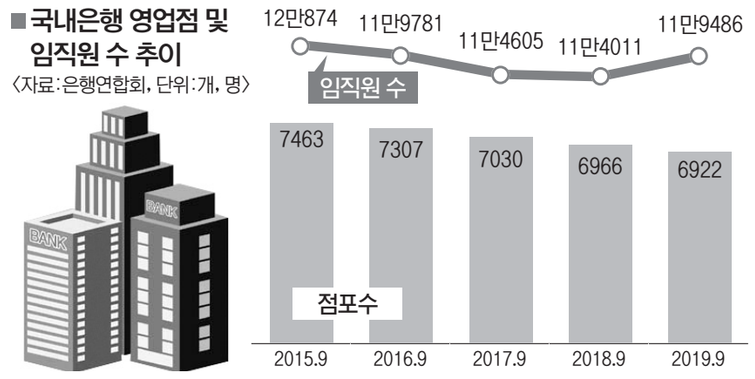
광주은행, 영업점 늘리며 공격적 마케팅

은행들 영업점포 통폐합 하는 등 점포 수 5년새 541개 급감
광주은행 6곳 신설·'365열린코너' 늘리는 등 시장 점유 총력

■국내은행 영업점 및 임직원 수 추이
〈자료:은행연합회, 단위:개, 명〉



시중은행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영업점을 줄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은행은 오히려 점포 수를 늘리는 등 공격경영에 나서 주목된다.

30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 영업점포 수는 6922개로, 5년 전(7463개)에 비해 541개(7.2%) 감소했다. 1년마다 평균 100여 곳씩 사라진 셈이다.

은행 영업점은 7463개(2015년)→7307개(2016년)→7030개(2017년)→6966개(2018년) 등 꾸준히 감소세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까지 모두 37개 점포를 통폐합할 예정이며 KEB하나은행 35개, 신한은행 7개, 우리은행 3개 등이 통합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통폐합이 연초까지 단행되면 전체 점포 수는 6840여 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앞다퉈 영업점을 줄이고 있지만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오히려 점포를 늘리며 '틈새공략'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올해 수도권 30번째 영업점인 마곡지점을 포함해 광주대, kbc써밋, 순천법조타운, 광양 중마동, 포용금융센터 등 6개점을 신설했다. 9개점을 신설했던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광주은행 영업점은 134개(2015년)→140개(2016년)→141개(2017년)→142개(2018년)→145개(올 11월 기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365열린코너'도 지난해보다 3개 늘어 247개(광주 181개·전남 66개)를 갖추고 있다. 제휴 자동화 기기(ATM·CD)는 올해 수도권 지역 1개 등 3개를 추가하면서 144개를 마련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은행 영업점 5곳 중 1곳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점포 위주로 수도권 시장을 공략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친 성과로 분석된다. 광주은행은 고객 편의를 위해 영업점 3곳을 1층으로 이전, 접근성을 높였다. 시중은행 점포가 임차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1층보다 높은 층으로 이전하는 추세지만, 광주은행 영업점 5곳 중 3곳(60.6%·88개)은 1층에 분포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최근 신설한 지역개발금융부를 앞세워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시와 광주시 동구·서구·북구·광산구 등 지자체 1금고를 수행하는 5개 출장소는 모두 지점으로 승격됐다.

광주은행의 다양한 지역 특화 상품을 내놓는 동시에 지역사회 환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전남애(愛)사랑카드는 올 연말까지 3만4000여 장이 발급됐다. 광주은행은 카드 이용금액 일부를 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적립하면서 올해 2억9500만원을 광주·전남에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개발해 지역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쥐 골드바' 구경오세요"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골든듀매장에서 직원이 2020년 경자년 '하얀 쥐의 해'를 맞아 쥐 그림이 새겨진 골드바 2종과 펜던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대기업 부진에 광주 광공업생산 14개월새 가장 큰폭 하락

호남통계청 11월 산업동향 조사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 감소율이 1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엠코코리아 등 대기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 광공업생산지수는 95.5로, 지난해 동월(106.6)보다 10.4% 줄어들었다.

광주 감소율은 지난해 9월 -18.2%에 이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나타냈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업종은 '1차금속'으로 감소율이 -44.7%에 달했다. 비금속광물(-44.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2.5%), 자동차(-9.3%) 등도 감소폭이 컸다.

11월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은 지난해 동월보다 7.7% 감소했다. 수출 주력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의 물량 감소와 카렌스 단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생산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품을 생산하면서 광공업 생산 감소폭을 보탰다.

반면 전남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기계장비 업종 생산 증가율은 119.4%를 기록했고, 여수산단 등의 화학제품 생산(11.1%↑)과 광양제철소 등의 1차금속(11.9%↑) 부문이 회복세를 보였다.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LNG선 수주가 확대되면서 기타운송장비 생산(19.6%↑)도 호조를 보였다.

광주지역 출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2% 줄었고 재고는 37.4%로 각각 증가했다. 전남 출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1%, 재고는 1.5% 각각 늘었다.

광주지역은 주택재개발과 신규 아파트 공사 수주로 건설수주액이 5695억원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374.9% 증가했고 전남도 149.1% 늘었다.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광주 2.8%, 전남 3.6%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7.67 (-6.54)	↓ 금리 (국고채 3년)	1.36 (-0.01)
↑ 코스닥	669.83 (+8.59)	↓ 환율 (USD)	1156.40 (-5.10)

조현준(왼쪽) 효성 회장이 '2019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을 수상한 권상환 효성TNS 상무를 격려하고 있다. 〈효성 제공〉

'2019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에 권상환 효성TNS 상무

美 ATM 시장 점유율 1위 공로

효성은 '2019 올해의 자랑스러운 효성인'으로 권상환 효성TNS 상무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상무는 효성TNS가 미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업체로 올라서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상무는 미국 주요은행의 입출금업무 자동화 추진 전략을 미리 감지해 제품 기획에서 디자인·제조·영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미국 시장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효성은 또 동반성장을 해온 협력사에 시상하는 '올해의 효성인상 특별상'에는 ㈜경남산기와 ㈜하나전기를 선정했다.

조현준 회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실행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지역 총괄 본부장 임명

정계두(48)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영업점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정 신임 본부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호남·충청·영남권 11개 지점에 대한 인사 및 실적을 총괄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수도권을 1지역본부, 영남권 6개 지점을 2지역본부, 충청·호남권 5개 지점을 3지역본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2·3지역본부를 통합했다.

정 본부장은 전남대경영대학원에서 재무회계를 전공했으며, 1990년 서울증권(유진투자증권 전신)에 입사해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광주지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3년부터 광주일보 '주간 증시 전망'을 매주 연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금요조찬포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서 개최

우리나라 민간단체 최장수 조찬포럼인 '금요조찬포럼'이 개최 장소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바꿔 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내년 1월 3일부터 금요조찬포럼을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해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소 변경은 그동안 진행했던 신양파크호텔이 올해 말로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2020년 첫 금요조찬포럼인 제1474회로 1월3일 신시열 전 CJ그룹 상무의 '인도 비즈니스 현황과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1월10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초청 강연이 열린다. /박정욱 기자 jwpark@